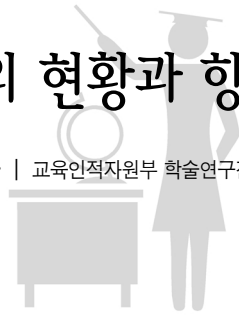


대학원 교육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김 원 찬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진흥과장



대외적으로 고등교육 시장 개방을 통한 고등교육의 경쟁적 환경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적인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며,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공급 과잉 현상은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함을 보여 주고 있다.

I. 서론

우리나라의 대학원 교육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 현상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한다. 고등교육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전체 고등학생 중 대학 진학률이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할 경우 76%를 넘게 되어 이제는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은 대학원 교육 단계에 그대로 이어져 1990년도 대비 2003년도 대학원 수는 무려 3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대학원 교육의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대학원 교육 단계의 양적 팽창은 고급 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와 공급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대학의

신설 및 증원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이외에도 석·박사 학위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사회·문화적 풍토, 최근 청년 실업률의 급증으로 인한 불안한 취업 전망 때문에 학업 연장으로 이어지는 점 등이 대학원 교육의 양적 팽창을 발생시키고 있다.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공급 과잉 현상은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심각한 문제를 던지고 있다. 이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고등교육 시장 개방을 통한 외국대학의 세계화 전략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고등교육의 경쟁적 환경이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적인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여 OECD 국가 중 41위를 하였으며, 교육 부문 정부 효율성에서도 31위를 차지하고 있어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함을 보여 주고 있다.

〈표 1〉 대학원별 과정별 설치 및 운영 현황

구분	설치 학교 수	석사		박사		계		
		대학원 수	입학 정원	대학원 수	입학 정원	대학원 수	입학 정원	
합계	205	991	85,459	296	16,535	991	101,994	
일반대학원	144	144	38,751	132	14,285	144	53,036	
전문대학원	84	115	6,020	77	901	115	6,921	
특수대학원	167	625	37,685	-	-	625	37,685	
협동 과정	학과간	53	53	1,780	39	670	53	2,450
	학연산	54	54	1,223	48	679	54	1,902

※ 특수대학원 중 교육대학 2,180명(11교), 일반대학 교육대학원 20,508명(134교), 한국방송 통신대학교 특수대학원 300명(1교) 제외

〈표 2〉 대학원 입학정원 증가 현황

구분	1997			2000			2003		
	석사	박사	계	석사	박사	계	석사	박사	계
국·공립	19,547	3,737	23,284	26,887	4,701	31,588	29,901	5,799	35,700
사립	47,547	6,215	53,762	67,563	8,351	75,914	77,794	10,029	87,823
합계	67,094	9,952	77,046	94,450	13,052	107,502	107,695	15,828	123,523

※ 교육대학원, 방송통신대학교 특수대학원 포함(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II. 대학원 현황

우리나라의 대학원 운영 현황은 일반대학원은 144개 대학에 설치되어 석사과정 38,751명, 박사과정 14,285명, 전체 53,036명의 입학정원이 있으며, 전문대학원은 84개 대학에 설치되어 석사과정 6,020명, 박사과정 901명, 전체 6,921명의 입학정원이 있으며, 특수대학원은 167개 대학에 설치되어 석사과정 37,685명의 입학정원이 있다. 이외에 협동과정으로 학과간 협동과정이 53개 대학원에 2,450명의 입학정원이 있으며, 학연산 협동과정이 54개 대학원에 1,902명의 입학정원이 있다. 대학원 전체적으로는 205개 대학에

991개 대학원이 설치되어 석사과정 85,459명, 박사과정 16,535명, 전체 101,994명의 입학정원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원별 설치 및 운영 현황은 〈표 1〉과 같다.

최근 대학원 입학정원 변동 추이를 보면, 1997년도에는 77,046명이던 입학정원이 2000년도에는 107,502명으로 다시 2003년도에는 123,523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입학정원의 증가 추세는 〈표 2〉와 같다.

III. 대학원 운영 체제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대학에는 대학원을

〈표 3〉 현행 우리나라 대학원 제도 운영 체계

구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목적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전문직업분야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
수업형태	주간	주간	야간·계절제
학위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원칙), 학칙으로 박사과정 설치 가능	석사과정
수여학위	학술학위	전문학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 수여 가능	전문학위
교육내용	학술이론 및 연구방법론	실천적 이론 및 실무위주 교육	실천적 이론 및 실무 교육
학부의 교원·교사활용	학부와 연계	학부와 연계되어 있으나 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및 전용시설 별도 확보	학부와 연계
배출인력	연구 및 교수인력(R&D)의 양성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인력의 양성	직업인의 계속교육

둘 수 있으며, 대학원에 학위과정 이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대학에 두는 대학원의 종류,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는 대학원의 종류는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방송·통신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 하나에 한하여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대학원 제도 운영 체계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Ⅳ. 대학원 운영의 문제점

1. 급격한 양적 팽창과 질적 수준 미흡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의 출발은 대학원의 지나친 양적 팽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30년 간 우리나라 대학원 수는 14.8배, 학생 수는 44배가 증가하였으나 대학원 교육여건은 이러한 외형적인 증가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원 학사의 느슨한 운영,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의 부실을 낳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대학원 학위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의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학원 교육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한 전반적인 수준 저하도 문제이지만 수월성을 목표로 하는 우수한 대학원 교육 측면에서도 국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

다. 지난 1999년 이후 대학원 연구중심 대학육성을 위한 BK21 추진의 성과의 하나로 과학논문 인용 색인(SCI) 게재 논문 수 부문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세계 1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질적인 수준을 볼 수 있는 영향계수(Impact Factor)로 보면 세계 50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국제 수준의 연구실적은 아직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IMD에서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는 대학교육 부문에서 전체 30개국 중 28위를 나타내고 있어 대학원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시급한 과제를 보여 주고 있다.

**성인의 계속교육을
 주된 목표로 하는 특수대학원과
 전문 직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특수성 차이가
 실제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학문과 이론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일반대학원과
 차별성이 거의 없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육을 하지 아니하고 학문과 이론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일반대학원과 차별성이 거의 없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신학자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에서 신학자 양성(Ph. D.)과 목회자 양성을 동시에 교육하는 대학원이 운영되고, 학술학위보다 전문학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오해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특수대학원은 교육과정이나 교육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려는 현상이 보편화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2. 대학원 유형별 특성화 및 기능 확립 미흡

법령상 우리나라 대학원의 유형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대학원간 차별성이 부족하여 대학원 종류별로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원 특성화 및 차별화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일반대학원 학위과정 지향의 사회·문화적 풍토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 성인의 계속교육을 주된 목표로 하는 특수대학원과 전문 직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문대학원과의 특수성 차이가 대학원의 실제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

3. 사회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는 효율적 인력 양성 미흡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한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 및 대학원의 정원 조정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위하여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하여 정원 자율책정 기준을 제시하고 대학원 학생 정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이 사회적·경제적 수요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중장기 인력수급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대학에서 대

학별 충원률, 사회적 인력 수요,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특성화, 전문화를 적극 반영하지 아니하고 학문 분야별로 백화점식 대학원 신설 및 증원을 하고 있어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대학원 인력 양성 체제로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4. 대학원 교육의 고유한 위상 미확립

대학원 교육은 그 자체가 독립된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대학원은 대학에 둘 수 있는 하부 기관의 하나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학원 자체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기 힘든 법령체계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학원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조직과 교원기준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중심 대학과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 중심 대학원 대학의 운영으로 차별화 및 특성화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대학원의 신설 및 증원의 경우 대학원에 진속하는 교원을 두지 아니하고도 가능하며, 대학원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령체계 마련, 대학원 교육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결과 공개 등 대학원 정책의 독자적인 운영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V. 향후 대학원 발전 방향

1. 독자성을 갖춘 고급 인력양성 기관으로 정립

현대 사회는 새로운 지식의 창조와 고도의 기술 혁신이 요구되고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고급 전문인력의 배출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고등교육은 학사과정에서의

인력 양성체제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학원 교육은 고등교육의 확대기에 학부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대학원 교육은 학사과정과의 연장선에서 대학 내에 대학원의 설치는 부수적으로 설치하는 정책의 기본적인 틀이 바뀌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미 대학교육이 원하는 거의 모든 학생이 진학하는 보편화 단계에 진입하였고, 지식 기반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원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체계와 행·재정 지원 체계를 별도의 체제로 독자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적으로 지나치게 팽창된 대학원 과정을 질적으로 우수한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유도하고, 대학원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

2. 대학원 교육의 유형별 정체성 확립

현행 우리나라 법령에 의한 대학원 교육 편제의 구분에 의하면 대학원의 유형은 크게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일반대학원은 기초학문을 대상으로 전공분야별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을 중심적 목표로 학술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에 종사할 고도의 전문지식, 능력, 자격을 갖춘 전문 직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전문학위 과정을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해당대학의 학칙에 근거하여 학술학위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

수대학원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현직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 교육과정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는 성격을 가지며 석사학위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원의 특성화를 전제로 하는 유형화는 무분별한 대학원 신설과 증원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학원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대학원을 제도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을 포함한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이 이미 자율화 기조로 바뀌어 최소한의 기준을 스스로 갖추었을 경우 전문대학원을 제외한 대학원의 신설 및 증원이 자율화되었기 때문에 현실 적용 과정에서 이러한 유형의 구분은 대학원 제도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

미 신설이 허용된 국제, 통역, 통상, 물류, 종교 등 많은 분야의 전문대학원과 성격이 크게 다른 의학, 법학, 경영학,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자격과 국가시험과 밀접하게 연계된 전문대학원이 제도화되고 있어 전문대학원 제도의 차별화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또한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사이에 직업 분야 및 실무교육의 성격 등에서 차별성이 부족하고, 특수대학원보다는 전문대학원을 더

욱 선호하고 전문대학원에서 학칙에 근거하여 학술 박사학위의 수여가 가능한 요인이 우리나라의 학벌문화 및 학위 인플레이션 사회 현상과 상호 작용하여 이미 설치 운영 중인 특수대학원도 목표 또는 교육과정이 뚜렷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에 국가에서는

전문 직업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높은 전환기준과 제한된 분야만을 전환하기 위해서 국가가 예외적으로 신설과 증원을 직접 관리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대학에 대한 잔존 규제로 해석되고 있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의학, 법학, 경영학, 교육학 등의 분야의 전문대학원의 명칭과 유형을 별도의 체제로 바꾸고, 그 이외의 전문대학원 유형은 현행의 특수

대학원과 통합하여 일원화시키고 신설 및 증원을 현행 방식대로 대학 자율로 조정하는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학원의 유형과 특성화는 대학 스스로 중점 분야나 목표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한 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스스로 책무성의 원칙에 따를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원의 특성화를
전제로 하는 유형화는
무분별한 대학원 신설과
증원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학원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대학원을 제도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전문대학원을 제외한
대학원의 신설 및 증원이
자율화되었기 때문에
현실 적용 과정에서
이러한 유형의 구분은
대학원 제도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3. 대학원 운영의 자율성 최대한 신장

현대 사회에서는 전공 분야의 다양화, 전공 지식의 고도화, 경쟁력을 갖춘 인력 확보 요구의 증대로 대학보다는 대학원 교육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게 증대하고 있다. 또한, 학부에서는 폭넓은 교양과 기초지식의 교육이 더욱 강조되면서 고급 인력은 대학원의 집중적이고 심화된 과정에서 양성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대학에는 우리나라 박사급 인력의 76% 이상이 소속되어 있으며, 21세기 국가 발전은 차세대를 이끌어 갈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이러한 연구 인력을 어느 정도 잘 지원하여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게 되었다. 대학원 교육은 이와 함께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고도의 전문적인 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할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학원 교육의 기본 성격상 학부 교육과는 달리 획일적인 법령 규정과 사전에 정해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원 교육은 독특한 성격을 충분히 활용하여 고도의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체제가 유지되도록 최대한 자율적 운영이 허용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학부 교육의 연장선에서 대학

원 소속의 별도의 전임교수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학에서 학부교육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설비를 인정하여 공동 활용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설립 운영의 기본적인 틀은 대학원의 특성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틀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 경우 대학원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우수한 교육 및 연구여건을 갖추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 설립 운영 기준을 적용하되, 운영상의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대학원은 연구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학사 운영, 학위과정 수여, 교수 요원 확보, 업적평가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고급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자율적으로 조정 반영되지 못할 경우 대학원

교육이 사회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원 교육에 대한 책무성 확보를 위해 교육 운영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체계를 갖추어 그 운영 결과를 객관적으로 공표하여 대학 스스로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는 교육체제 확립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학원 과정 신·증설 억제와 학부 과정과 연계한 대학 자체의 적극적인 구조 조정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 중심 대학 육성 사업은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들에 대한 인력 양성 지원을
하였다는 점에서 대학원에 대한
지원 정책의 커다란 전환을 이루었다.
대학원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대학원의 유형별 기능과
성격을 더욱 차별화하고,
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고급 인력 양성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우수한 교육 및 연구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4. 대학원 교육 내실화를 위한 우수한 교육연구 환경 조성

대학원 교육은 급격한 양적 팽창을 이루었으나 교육여건은 크게 취약하여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대학원을 별도의 독자적인 지원 대상 기관으로 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대학원을 대학의 하나의 부속 개념으로 보는 정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대학원이 차별적인 노력이 없이 남של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1999년도 7년간 매년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는 연구 중심 대학 육성 사업은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들에 대한 인력 양성 지원을 하였다는 점에서 대학원에 대한 지원 정책의 커다란 전환을 이루었다. 따라서 대학원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대학원의 유형별 기능과 성격을 더욱 차별화하고 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고급 인력 양성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우수한 교육 및 연구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

서 적극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갈 신성장동력 분야 및 국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고급 인력 양성 및 창의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러한 투자는 최대한 선별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분야에 따라 세계 우수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연구 중심 대학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구 중심 대학을 지역 균형 및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수도권 및 지방에 각각 7~8개 정도 선정 집중 지원하여 대학원의 세계적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대학교육**

김원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였고, 동 대학교 대학원과 영국 Leeds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교육부 외자사업과, 교원정책과, 전문대학행정과, 재외동포교육과, 대학정책과장 등을 거쳐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진흥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